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여름 가족 캠프 등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스크에 싸인업해주세요.
4.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후 식탁교제(potluck)이 있습니다.
5. 1-2월 교회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22,408.91
 - 지출: \$17,139.44
 - 잔액: \$55,259.59 (+ saving account : \$ 61,622.40)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4일 : 강태운 25일 : 현지혜
 - 26일 : 양현미, 김용현 27일 : 진희경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임상희 / 설교번역: 이예슬
- 3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3월 정기 심방 : 주나 목장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2주)

사 50:4-9a / 시편 118:1-2, 19-29 / 빌 2:5-11/ 막 14:1-15:47

교회세운날 2017.6.11

23-12 3월 24일 (사순절 여섯째/종려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막 11:9-10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장승호 형제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3장 13-21절 — 인도자

설교 — 보내시고 내어 주신 사랑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Gravity or Grace?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둑입니다. 그는 아테나이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지키고 서 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를 데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침대에 높여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침대보다 나그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늘여서 죽였습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집어 넣고 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대곤 합니다. 사람은 사이 존재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사이 존재라는 것은 인간(人間)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하지만, 인간의 현존을 나타내는 두 개념인 시간(時間)과 공간(空間) 또한 사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를 살아가며, 하늘과 땅 사이의 이곳에 살아갑니다. 사이 존재인 인간은 ‘차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홀로 떨어져 살아갈 수 없고,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가두는 격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불온한 것이며 잘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하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견해, 나의 취향을 절대화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재단하려 나섭니다. 부먹이 옳으니 짝먹이 옳으니 하며 내가 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따라야 한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절대적의 자리에 앉아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라는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뜻에 따라 다른 이를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악마의 일의(一意)적인 욕구에 대한 사랑의 저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내려 놓고 다른 이를 위해 나무 틀에 자기를 못박는 것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반대 극점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지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보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주라도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보겠다고 작정하는 기간이지요. 우리는 모두 자기애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 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난 주간 만큼은 우리가 그 징글징글한 자기애의 중력을 자기 부정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기 위해 몸부림 쳐 보는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탁하신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삶의 결과 하늘로 들어 올리시게 됩니다. 자기애의 Gravity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Grace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부력을 맛보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